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한국구술인물사⑤ / 전 재 성 빼알리성전협회 회장 - 1970년대 중반 불교운동

독일 유학가서 거지성자를 만나다

동국대 대학원에 진학한 이후 그는 민주화운동과 거리를 뒀다. 비록 1980년 이후 신군부의 등장과 격변하는 시대상황이었지만 전재성은 인도철학 연구에 매진했다. 그러던 그는 독일 유학을 결심한다. 시위가 발생하면 항상 사전 구급당하는 전재성을 안타깝게 여긴 여자 친구가 독일유학을 권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지병인 결핵을 앓고 있던 그는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여자 친구 남동생의 도움을 받아 극적으로 쾰른대학에 입학했다.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 그리고 티베트어를 독일말로 배웠다. 이듬해 다시 본 대학으로 옮겼고 여기서 전재성은 '거지성자' 페터 노이야르 선생을 만났다. 전재성은 결핵과 합병증으로 괴로워하다가 길거리를 나섰고 우연히 거지성자인 페터 선생을 만났다.

맑고 깊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손 코넬리처럼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삶을 사느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나는 집 없이 돈 없이 여자 없이 산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생활신조라는 거예요."

전재성은 거지성자 페터 노이야르와 자주 만났다. 그는 불경을 읽고 오로지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는 무속자였다.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독일인에 마냥 신기해하면서 그와 친하게 됐고 독일의 초기 불교에 대한 연구 상황을 알게 됐다.

"독일에는 벌써 1910년에 (초기불교 경전) 번역 됐어요. 한국에는 아직 번역이 안된 상태였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 1910년 노이만이라는 학자가 마지막니까요. 인니까요 번역을 다 해냈고, 헤르만 헤세 같은 사람은 그 당시 동양학자인 자기 삼촌 집에 놀러갔다가 노이만이 번역



거지성자 페터 노이야르

한 불경을 다 가져왔던 거예요."

헤르만 헤세가 삼촌 집에서 불경을 가져와 읽고, 그의 문학에는 불교 사상이 내

재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1600년의 불교역사를 자랑하면서 초기 불교경전도 번역하지 못했다. 자괴감에 전재성은 변민했다. 그는 빼알리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귀국해서 번역해야 할 일들을 챙겼다. 쌍옷따니까에 대해 구술한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초기에 탁발하고 결식을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사람을 만나 대화한 내용들이 주로 많이 기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내용 자체가 짤막짤막하고 한 그런 짤막짤막한 스토리들..."

빼알리성전협회를 설립하고 그는 쌍옷따니까야, 맞지마니까야, 앙곳따라니까야 등의 경전들을 번역했으며, 티베트어에도 관심을 가지고 티베트어 사전 작업을 마쳤다. 이와 더불어 그는 당시 독일에서 번진 생태운동을 직시하고 1990년대에 생태운동에 대해 글을 쓰기도 하였다. 현재도 그는 초기불교경전 번역에 매진하고 있다.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⑦ 감산사

통일신라의 화려함 뒤에는 법상종이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에는 감산사의 불상이 있다. 불상의 뒷면에는 불상의 조성연기를 전하는 명문이 실려 있어 그 사상과 역사를 살필 수 있다. 조상기에는 "개원(開元) 7년(719년, 성덕왕 18) 2월 중아찬(重阿飡) 김지성(金志誠)이 감산에 있는 장전(莊田)을 회사해 아버지 인장(仁章) 일길간(一吉干)과 어머니 관초리(觀肖里) 부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 돌로 만든 아미타불상과 미륵상을 조성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삼국유사>에는 이 미륵존상을 금당(金堂)의 주존, 아미타불상은 강당(講堂)의 주존으로 봉안했다고 전한다.



감산사미륵

존인 미륵존상의 화광(火光, 광배) 후기(後記)를 인용하여 이 양 불·보살입상의 존재를 밝히고 있다.

우아한 자태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미륵보살상은 정교한 광배를 배경으로 연꽃대좌위에 몸을 살짝 비튼 채 온화한 자세로 서 있다. 신비스럽기도 하고 육감적이기도 한 보살상은 통일신라 보살상의 미감을 뽐내고 있다. 아름다운 자태로 우리를 내려다보는 미륵보살상은 구세의 미륵보살의 모습을 보여준다. 아미타불상은 풍려하면서 근엄한 얼굴에 당당한 불상으로 여성스러운 미륵보살과는 달리 당당한 남성미와 그러면서도 온화한 미소를 살며시 보여주는 아름다운 작품이다. 미타정토에 계신 모습 그대로 우리를 넉넉함으로 안아줄 듯 당당한 매력에 보는 이를 편안하게 한다.

조선총독부, 공진회 위해

경복궁 전각 일부 철고는

감산사 불상 이전 전시해

공진회(朝鮮物産共進會)를 위해 경복궁 전각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지은 특설미술관에 불·보살입상을 전시하기로 했다. 공진회가 끝난 12월에는 특설미술관에 "조선총독부 박물관"이란 이름으로 고쳐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이 불·보살상은 총독부 박물관 수장품이 되고 말았다. 해방 후에도 불·보살상은 감산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 놓이게 된다. 현재 감산사 사지(寺地)에는 삼층석탑(三層石塔)과 석등(石燈) 대석(臺石) 및 건물 기단지(基壇地)가 남아 있다.

불상을 조성한 김지성은 67세에 벼슬을 내놓고 그의 별장인 감산정에 내려와 '노자'와 '장자' '유가사지론'을 읽으며 유유자적하려 했다. 하지만 김지성은 성덕왕 18년(719)에 왕명으로 다시 전대등으로 임명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김지성은 감산정을 내놓아 절을 만들어 감산사로 바꿨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권3 '남월산(南月山) 감산사(甘山寺)' 조에서도 금당(金堂)의 주

불상의 조성연유는 법상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상기에 등장하는 유가사지론과 무척에 대한 깊은 믿음은 승려도 아닌 신자로서 유가사지론을 접하고 있는 점에서 법상종과의 관련성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두 분의 불상도 미륵보살상과 아미타상이라는 점에 주목해볼 수 있다. 중국 법상종의 개조였던 현장이 유가사지론을 구하기 위해 인도로 구법여행을 떠났으며 미륵신앙을 기반으로 한 미륵 정토왕생이 이러한 점을 뒷받침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법상종 계열의 승려들이 아미타 정토신앙을 깊이 연구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법상종과의 연관성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

통일신라의 화려한 신앙의 색채는 새로운 조형미와 새로운 불상 조성의 방식으로 법상종 신앙의 면모를 보여준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제석(帝釋)과 함께 떠나는 신화(神話) 여행⑦ - 등장인물 소개 3

아수라와 제석천의 전쟁

야차(夜叉)가 아무리 무서운 신이라고 하지만 팔부신장 중에서 최고로 무서운 신을 꼽자면 당연히 아수라(阿修羅)다. 불교에 융화된 인도 고유의 신들은 하나 같이 발군의 개성을 자랑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수라의 존재는 압도적이다.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함이었다고 하니 신들의 전쟁이라는 명색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신(神)이나 인간(人間)이나 남자들의 세계에서 식욕과 성욕이라는 본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알게 해준다. 게다가 자신의 이름을 건 '아수라장(阿修羅場)'이란 단어가 이토록 잔혹함을 상징하고 있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절대적인 포악함과 잔인함에서 남성이 가진 '폭력성' 또한 잘 드러난다. 남성일 때의 아수라는 말 그대로 추악하게 그지없는 외모에 오로지 본능에만 충실한 존재인 것이다.



아수라 삽화·김영수

는 불쌍한 남자이다. 포악하고 기운이 넘치며 미녀도 많고 부하도 많아 전쟁을 일삼는 신이지만 슬프게도 집 없는 남자임을 감안했을 때 그 의식 많고 불같은 성질을 조금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두 개의 종족을 합친 모습의 마호라가 마호라가(摩呼羅伽)는 아수라와 달리 두 개의 존재가 합쳐진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두 개의 존재란 인간과 뱀이다. 마호라가는 뱀의 얼굴에 인간의 몸 그리고 뱀의 꼬리를 지니고 있으며 팔은 있으나 발은 없다. 기왕이면 얼굴을 포함한 상반신이 인간이

있으면 뿔 정그러울 텐데 얼굴이 뱀, 몸이 사람, 꼬리가 다시 뱀이라는 독특한 비율 때문에 어색한 면이 적지 않다.

반신반인(半神半人)은 서구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마호라가와 가장 비슷한 존재는 인간의 상반신과 뱀의 꼬리, 그리고 뱀으로 된 머리카락을 지닌 매두사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 속 매두사는 복수의 화신으로 눈이 마주치는 순간 '뿔'이 되는 무서운 능력을 갖춘 존재이지만 불교에 융합된 이상 마호라가는 더 이상 무서운 신이 아니다. 마호라가는 음악을 좋아하여 부처님이 설법을 하실 때 건달파(乾達婆)들과 함께 어울린다. 또 '인간'의 형상을 한 부분인 두 손으로 주먹을 쥐거나 가슴 앞에서 춤을 추는 형상을 취하기도 하고 뱀이 있는 관을 쓰고 노래를 하는 모양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조민기 작가·칼럼니스트

본능에 충실한 매력적인 패장, 아수라 아수라는 매우 드라마틱한 내력을 가지고 있는 신장(神將)이다. 본래 도리천의 주인이었던 아수라는 굴러들어온 돌 제석(帝釋)에 맞서 한판 승부를 벌였다가 슬프게도 졌다. 하지만 곧바로 승복하지 못하고 도리천을 떠난 후에도 종종 사나운 부하들을 이끌고 제석을 찾아와 싸움을 벌였다. 아수라와 제석천의 싸움은 곧 천계를 들썩거리게 만드는 전쟁이었고 그들이 싸울 때마다 매번 시체가 질펀하게 널려있는 참혹한 전쟁터가 펼쳐졌다. 그 모습에서 '아수라장(阿修羅場)'이라는 말이 태어났다. 아수라에게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지만 맛있는 음식이 없고, 제석에게는 맛있는 음식은 있지만 아름다운 여인이 없어 서로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아수라가 여성일 때에는 극도로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출현한다는 점이다. 남성과 여성, 아름다운과 추한 동시에 갖춘 아수라의 태생적인 한계는 거대한 매력으로 탈바꿈하여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예술가들의 영감을 자극시키고 있다.

제석에게 패한 후, 특정 거주지는 없고 몸을 변화시켜 연꽃의 뿌리에 있는 실 구멍 속에 숨었다고 한다. 알고 보면 집도 없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4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네츄럴 삼베 멩석 카페트

오직~ 현불샵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농치시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 원산지 : 한국

(중) (대)

- 삼베 멩석 카페트
 - ◇ 크기 :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 1.항균기능 (9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득이, 곰팡이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 5.자외선 차단 기능 (99.99% 차단)
 -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 7.적외선 흡수 기능, 혈액, 알파, 감마선의 비투과성

■ 삼베 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 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용도 (공용) : 요거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